

도입
기도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때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와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와

For I am the Lord your God, so abide in Me
Your Deliverer and Protector, a Shelter from the storm
Don't tremble with fear. Surely I will help you
I am holding your hand, so do not be afraid.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You are Mine and I am the Lord your God
You are precious in My sight and you are highly honored
I, the Lord your God love you.
I the Lord your God love you.

본문 열왕기상 18:37-39

-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 38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말은지라
- 39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1 King 18:37-39

37 Answer me, O Lord, answer me, that this people may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turned their hearts back." 38 Then the fire of the Lord fell and consumed the burnt offering and the wood and the stones and the dust, and licked up the water that was in the trench. 39 And when all the people saw it, they fell on their faces and said, "The Lord, he is God; the Lord, he is God."

설교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혼자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엘리야의 외침은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엘리야의 이 질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쳤습니다. 그들은 소리치며 춤추고, 절망 가운데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들의 신들은 생명이 없었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 우리의 에너지, 정체성, 심지어 피까지. 그러나 우상은 결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능력과 의미를 약속하지만 결국 인간을 소진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단순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와 하나님인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v.37) 그리고 즉시 - 소리침도, 과장된 행위도, 자기 학대도 없이 -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차이는 놀랍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극단적인 노력과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은 겸손한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워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충족하심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부은 것은 인간적인 수단이 전혀 개입될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이 제물을 삼킬 때, 모든 사람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참된 부흥의 전환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도 우상들은 여전히 이름만 바뀌었을 뿐 존재합니다. 그 이름은 '성공', '인기', '통제', '안락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약속하지만 결국 피로와 허무만 남깁니다. 그러나 오직 참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 부를 때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응답은 더 이상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은혜의 불로 임합니다. 그 불은 갈멜산의 제단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셨습니다. 갈멜산의 불은 제물을 삼켰고, 갈보리의 불은 아들을 삼켰습니다. 두 불 모두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직 그분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설교

On Mount Carmel, Elijah stood against hundreds of prophets of Baal. Yet he was never truly alone—he stood in the power of the living God. The people were torn between two loyalties, and Elijah's challenge was clear: "How long will you waver between two opinions?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Baal, then follow him." Elijah's question was not only for the Israelites of his day but also for us today. From morning until evening, the prophets of Baal cried out. They shouted, danced, and even wounded themselves in despair. But Scripture says, "There was no voice, no one answered, no one paid attention." Their gods were silent because they were lifeless. Idols always demand your all—your energy, your identity, even your blood—but they can never give you life." Idols promise power and meaning but only drain and destroy us in the end. Then Elijah simply prayed, "Answer me, O Lord, answer me, that this people may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turned their hearts back." (v.37) Immediately—without shouting, without dramatic performance, without self-harm—fire fell from heaven. The contrast is astounding: idols demand frantic effort and self-destruction, but the living God answers a humble prayer of faith. God is not one who must be awakened; He is the One who awakens hearts. This moment reveals the glory and sufficiency of God. Elijah poured water over the altar to remove any trace of human manipulation. When the fire consumed the sacrifice, everyone knew beyond doubt: only God saves, only God satisfies, and only God deserves glory. The people fell facedown and cried out, "The Lord—He is God!" This is the turning point of every true revival—when human striving ceases, and the power of God begins to move. Even today, idols still exist under different names—success, popularity, control, comfort. They promise identity but leave only exhaustion and emptiness. Yet the One True God still answers when His people call. His fire now falls not in judgment but in grace. The fire that once fell on Mount Carmel now falls on Calvary's cross, where God revealed both His holiness and His heart. The fire on Carmel consumed the sacrifice, and the fire on Calvary consumed the Son. Both declare the same truth: The Lord—He is God, the only One who truly answers.

나눔질문

1.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기억이 있나요? 한번 나누어 봅시다.
Do you have any memories of trying to move God's heart through your own efforts? Let's share together.
2. 이 시대에도 이름을 바꾼 우상은 존재합니다. 과거에 하나의 신의 이름으로 우상이 존재했다면 이 시대에는 사상과 철학으로 우상화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Even in this generation, idols still exist – though their names have changed. In the past, idols existed under the name of a particular deity; today, they are idolized through ideologies and philosophies. What are the idols of our own time?
3.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하게 됩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무엇으로 능력을 대결해야 할까요?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In today's passage, Elijah engages in a power contest with the prophets of Baal. If we, as God's children, were put in a situation where we must demonstrate God's power in the world, how should we do so? Let's talk about it.

마침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썩어지고 변화되는 우상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만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rd of love, we thank You. Thank You for showing us today the true nature of love. Lead us to live lives that serve in love, bringing restoration and peace wherever we go. We thank You and pray in Jesus' name.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기도제목

1.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Help me to live a life that relies not on my own effort, but on the infinite power of God.
2.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파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Keep me from being shaken by the values and philosophies of this world. Destroy every idol, and help me live a life that reveals the one true God.
3.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우상 가운데 마땅히 행할 바와 말할 것을 준비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Grant us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so that, in the midst of the idols of this world, we may remain in the truth – prepared to do and speak what is right.